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시편 22(21),26-27,28과 30-31,30-32(◎ 26-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또는 ◎ 알렐루야.)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 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같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 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 2독서] 1요한 3,18-24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요한 15,1-8

성가	8시 미사	입당 35	봉헌 212	성체 151 188	파견 244
	11시 미사	입당 35	봉헌 212	성체 151 188	파견 24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5주일(5월 3일)		부활 제6주일(5월 10일)		주님승천대축일(5월 17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승원루카	1 구역 : 엄평련파트리샤	정애리스텔라	2 구역 : 조선덕레지나	정일환프란치스코	3 구역
제 1 독서	최환준베네딕토	1 구역 : 최대연다니엘	정일환프란치스코	2 구역 : 심태규미카엘	채성일토마스	3 구역
제 2 독서	최수영베네딕타	1 구역 : 이명란아네스	정영희글라라	2 구역 : 심승화헬레나	정애리스텔라	3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고해성사를 위해 여기저기 본당을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점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여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또 다른 마음 한 켠에는 ‘왜 엉뚱한 곳에서 해매고 있을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도 교차합니다.

사실 세상이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스러운 것을 찾게 됩니다. 윤회나 환생, 또는 신비스러운 신령 현상 등을 찾으며 그 불안감을 달래 보기도 하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점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굿을 하면서 나에게 있는 액운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신흥 종교 같은 것에 빠져 생명수나 영생을 찾으려, 자기 재산을 몽땅 가져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면 묘 자리가 별로라 그렇다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묘 자리를 옮겨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내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불안하기에 이것저것 해 보기는 하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이고, 잠시 내 마음에 위안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전혀 엉뚱한 것에서 찾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몇 십 년 후의 내 모습, 아니 바로 1시간 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주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쓰러져 버리고, 멀쩡하게 잘 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

지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 15, 7)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너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청하라고, 다 이루어질 것’ 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내 삶의 뿌리가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헛된 것에 기대어 있기에 우리들은 정작 불행이 닥치면 엉뚱한 곳에서 해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뿌리가 하느님께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 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주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안에 머물러라”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대적인 포도 재배는 1910년경 수원과 독섬에서 포도 나무를 심은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안성(현 구포동)본당의 초대 주임 공베르(A. Gombert, 孔安國, 1875~1950) 신부님이 1910년 이전에 포도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베르 신부는 자신이 재배한 포도를 이용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이자 현대적으로 양조된 포도주였습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에 대한 목자로서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신앙인들은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더할 수 없이 밀접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란 줄기에 붙어있음으로 인해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다운 신앙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5)고 하시며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 생활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실천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방문을 끝내고 바로 로마에서 한국교회 방문의 의미를 ‘기억, 희망, 증언’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특히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사회의 온갖 차별을 극복하는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그 협조자가 온다.

정말 온다. 기다려라. 내 말을 믿어라.

글_정영식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생각(think)과 감사(thank)

공공 언 날개를 가다듬은 새싹이, 겨울의 추위에서 깨어난 것에 감사하며 넓은 세상으로의 날개짓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의 잎새와 알록달록한 꽃잎으로 뒤덮인 눈앞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동반자이며, 새로운 것을 희망하던 이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 발레리나로서 18여 년을 달려온 제게 이처럼 또 새롭게 다가오는 봄은, 새로운 곳으로 달려 나가 새로이 감사할 일들을 만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저는 국립발레단에서 15년 동안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행운아에 속합니다.

그러한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지내왔지만, 언젠가 더 높은 곳을 위해 한 번 더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관객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안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출발, 그것은 최고가 된 시점에서 ‘국립발레단’이라는 말을 깨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생각과 기도 속에서 언젠가 또 감사할 일이 찾아올 것임을 기대하며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큰 걱정이 되었던 독립 이후의 시간은 또 다른 감사의 기쁨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열정을 쏟는 생활이나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더욱 많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유로워진 활동들은 ‘발레리나 김주원’이 아닌 ‘예술가 김주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랜 생각들이 감사할 것으로 바뀌게 된 것에는 많은 노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생각(think)과 감사(thank)는 어원이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곧 감사가 되는 과정을 위해 땀방울을 흘린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새롭게 선보

이는 <유지컬 팬텀>과 <마그리트와 아르망 - 칸토 앤 발레>로 인해 또 새로운 모습을 대중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제 방향에 대해 고민했던 모습과는 달리 더 나은 길로 나가는 지금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느 분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적어주신 작은 계명을 지켜나갔던 것이 지금의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필리 4,6-7)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전처럼 앞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느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나은 발레리나가 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김주원 힐데가르트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발레전공 교수

성경산책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사도 바오로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생활했습니다.

사울도 그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바리사이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열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열심한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의 눈에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잡아들일 책임을 지고 다마스쿠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9,1-19.22,3-21

세례를 받은 후 그는 바오로라 불리게 됩니다. 세계를 무대로 선교사업을 하는 데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후의 바오로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다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필리1,12-30.3,12-21

사도 바오로는 세 번에 걸쳐 복음 선교 여행을 떠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걸

어갔습니다. 사도 바오로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도 베드로와 두 기둥을 이루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하여 끝내 순교로 삶을 마감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엽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다.”
(사도9,4-5)

나는 ()하게 살 줄 도 알고 ()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
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4,12-13)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5월 3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
	연	김요셉(광)	자녀들
	연	이요셉(창순)	이시몬(인학)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요시주구 카와키타	신미카엘라
	연	조상님	임루시아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그레이스(민정)	전수산나
5월 5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5월 6일 수	연	이프란치스코(천규)	박헬레나
5월 7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크리스페리	가족들
	생	이정우	전수산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	268	-	268
헌 금	-	\$1,660	-	\$1,660

< 교무금 >

이정연(5) 이영길(5)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임루시아/김유렀다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이 시기에 묵주 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본당신부님께서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 까지 북미주사제연수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모의 밤

5월 30일(토) 저녁 8시

◆ 2차 헌금 안내

5월 17일 : Catholic Charities

◆ 모임

- \* 기체조 : 매주 교종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 사목회의 : 오늘 교종미사 후 106호실

◆ 오클랜드 본당 청소년기금마련 걷기대회 준비모임

5월 10일(다음주) 교종미사 후 202호실

◆ 대건 장학생 선발

지원서 : 친교실이나 사무실

-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5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   | 5월16일(토) 6시 | 교육관106호실 |
|    | 실버     | 5월30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3  | 알바니 YB | 5월16일(토)12시 | 최윤기유스티노덕 |
| 4  | 라스모어   | 5월23일(토)    | 신재극스테파노덕 |
|    | 월넛크릭   | 5월15일(금) 6시 | 김영준사비노덕  |

◆ 북가주 한인성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6일(토) 12시까지 집결

장소 : Wildhorse Golf Club(2323 Rockwell Dr. Davis)

회비 : \$180(부부) \$100(개인)

문의 : 김진홍 안토니오 916-605-6974

◆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에제 36, 26)

강사 : 이미숙 아가다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웃음 치료사)

일시 : 6월 6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점심/저녁 제공, 무료 베이비시팅 제공

문의 : 영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본당 3대 사목회장이셨던 이천규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4월 30일 메릴랜드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연락처 : 410-531-9237(이아네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야고보(5/3) : 이재우, 안해준

**주일학교 소식**

- 5월 17일 : 주일학교 방학

(영어미사를 집전해 주시던 Fr. Arjen 과

Br. Pius 가 이 날을 기해 본당을 떠나십니다.)

**안국학교 소식**

- 5월 9일 : 미술특강

- 5월 16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5월 17일 : 미사 중 노래발표

- 5월 30일 : 소풍(Six Flags)